

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우리가 꾸는 꿈은?

피터 터친(Peter Turchin)이 쓴 '제국의 탄생'을 읽다보면 역사는 진보한다는 말에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을 모두가 사라져 버렸다. 대체 무엇이 이들 제국을 무너뜨렸을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통치 혹은 지배 엘리트들의 도덕성이 추락하면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내 것'이란 몰염치가 일반화되어 불평등이 극에 달하게 된다.

로마제국 역시 초기에는 매우 건장한 가치가 신봉되었다. 엘리트들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했다.

내어 놓았다. 세금도 마찬가지로였다. 원로원 의원, 기사 계급, 일반 시민 순으로 세금을 부담했다.

하나, 제국이 부유해지고 강성해짐에 따라 엘리트들의 마덕은 어느새 국한의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병들어 간다.

로마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한데,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도는 약 45%로 19개 조사국 중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점차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5.8%만을 받고 있다.

그러니 중산층이 깨달아야 할 건 당연하다. '계층 상승의 디딤돌'로 여겨지던 중간계급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최근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중간계급이었던 100명 가운데 5년 뒤인 2014년까지 그 계급을 유지한 사람은 겨우 72명에 불과했다.

간계급 유지율은 2000~2009년까지만 해도 약 79% 정도였다. 한데 2009년 이후 갑자기 급락하고 있다.

이쯤이면 돌아봐야 한다. '이반만은 다르다'란 말은 역사에선 통하지 않는다. 현상이 일치하면 결과 역시 동일하다.

화산재에 묻혀 있던 폼페이 유적지에서 찾아낸 낙서는 그때를 살았던 평범한 보통 시민의 무력감과 상실감을 웅변한다.

'난 8번이나 실패했다. 16번이라도 실패했을 거다. 난 이 일 저 일을 전전했어. 해볼 일은 다 했지만 잘 안되었지. 내 꿈은 뭐였나?' 과연 우리 꿈은 어디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경제평론가>

종교칼럼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자



김성원 광주 중흥교회 목사

는데, 보나노 피사노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해 1174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3층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지반 한쪽이 꺼져 내려가는 것이었다. 지반이 애초에 모래와 점토로 구성된 연약지반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탑은 완성된 후에도 매년 약 1mm 씩 계속 기울어 갔으며, 어떤 때는 하루에 무려 17mm 가량이 기울어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북쪽이 55.22m, 남쪽이 54.52m)로 불안하게 서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탑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두번 째 건축가가 탑을 올릴 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고 한다.

반면 일본 도쿄(東京)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가 설계한 호텔인데, 유명한 동경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빌딩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도 이 빌딩만큼은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 건축을 시작할 때, 그 설계에 대해 아주 많이 불평했다고 한다. 그의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하자면 기초 공사에만도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처 기초를 다진 후,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 큰 동경대지진 가운데서도 그 건물만큼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모든 것에 있어 기초는 그렇게 중요하다.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그 원인이 기초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사회의 기초를 다시 다져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정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사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존중하기는 사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올바로 회복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기고

문화가 하나 되어야 진정한 통일



김정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충균협의회장

는가?" "영남에서 깨달음의 법을 구하려 왔습니다."

"영남인은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이에 해능은 "사람은 남쪽 북쪽이 있지만 불성(佛性)에야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해능스님의 '육조단경'에 나오는 일화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남·북은 단지 지역적인 구분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으키는 갈등과 분열을 질타한 것이다.

올해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뉜 지 70년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은 정치사상의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과 북은 꾸준히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가중시킴 뿐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 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흔히 통일을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정치와 경제적 통합을 말한다. 그러나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통일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

문화는 힘이 있다. 일찍이 백범은 '나의 소원'에서 '우리의 부력은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한국의 드라마 한 편이 동남아는 물론 세계인들을 움직이고 있다. 세계인이 한국의 문화에 환호하고 있다.

국에 나가보면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져 있음을 실감한다. 이러한 성장에는 K-팝 스타들의 노래와 춤, 드라마, 영화 등 한국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때, 남북의 전통문화가 함께 한다면 한민족의 위력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그동안 남과 북은 체육인들이 운동경기를 갖고, 음악인들이 북쪽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며 문화를 교류하고 했다.

해능스님이 불성에 남·북이 없다고 하였듯이 한반도의 남과 북도 본래는 한민족이란 이름으로 하나였다.

社說

예상되는 풍년 농사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올해 쌀 수확 예상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되레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연속 풍년이 들면서 정부 재고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쌀값이 곤두박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 등에 따르면 올해 10a당 쌀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520kg)을 크게 웃도는 528~539kg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예상량을 토대로 한다면 올 전국 쌀 생산량은 지난해 424만보다 증가한 422만~431만t이 된다.

뛰어넘는 양이다.

문제는 연속적인 풍년으로 정부 곳간의 쌀도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 쌀 재고는 적정선인 70~90만t을 넘어선 139만t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쌀값 안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쌀 섭취량을 늘리고 여성단체들도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쌀 소비를 늘리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공채 의무화로 사립학교 부정 채용 막아야

광주·전남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 임원의 친인척 다수가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10년 광주 지역 사립학교에서는 법인 이사장 인척 20명이 교직원들의 진로를 막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 이사장 자녀나 조카가 교사·행정직원 등을 맡고 있는 학교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공채 의무화 등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사립학교 교원 급여 등에 쓰이는 막대한 보조금이 해마다 예산으로 지급돼 명분도 충분한 만큼 법제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행정직원으로 일하는 등 아예 집안 일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곳도 있다.

이들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등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교원 선발을 위탁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다.

사립학교 부정채용 방지를 위해서는 공채 의무화 등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사립학교 교원 급여 등에 쓰이는 막대한 보조금이 해마다 예산으로 지급돼 명분도 충분한 만큼 법제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無等鼓

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헛갈리는 것이 음식의 배열 순서다. 과일과 육류 등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 성공적인 '상 차리기'의 관건인데, 예법에 어두운 사람은 어르신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다.

상 차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 죄송합니다'라며 슬쩍 넘어가고 말 테지만, 문제는 '왜 그 자리에 놓아야 하는지'를 따지고 드는 사람도 없지는 않는다.

상 차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 죄송합니다'라며 슬쩍 넘어가고 말 테지만, 문제는 '왜 그 자리에 놓아야 하는지'를 따지고 드는 사람도 없지는 않는다.

자칭 전문가들은 중국 남송시대 편찬된 '주자가례'를 근거로 대근 하는 데, 이 책에도 홍동백서니 조율이시니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율곡 이이도 '격몽요결'에서 '차례에는 계절 음식을 올리지만 별다른 게 없

며 떡과 과일 두어 가지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 유교문화의 본산인 성균관 관계자들 역시 "차례상을 차리는 데 언급되는 엄격한 규칙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생각해 보면 '과연 어느 누가 저 상에 다녀와 '귀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신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산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하는 의심이 든다.

가"하는 의심이 든다. 조상을 공경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경외심(敬心)이 '상 차리기 규칙'을 만들어 내고, 이 규칙이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한 것이 양 슬그머니 자리를 잡은 것으로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진실처럼 포장돼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둔갑해 버리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자세를 어떤 순서로 놓아야 한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광주일보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